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마바리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짐을 실은 말. 또는 그 짐.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8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5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마바리'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짐을 실은 말. 또는 그 짐.

마바리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마바리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마바리 사전 표기 요약	—	—	—	—	●→	●→
물바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말바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馬바리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마바리
  19세기20세기현재
- 물바리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4종
마바리, 물바리, 말바리, 馬바리

마바리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마바리'는 19세기부터 한글로 표기된 '마바리'로 나타나고 20세기부터 한자로 표기된 '馬바리'도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마바리'는 동물인 말을 뜻하는 한자어 '馬'를 한글로 표기한 '마'와 마소의 등에 잔뜩 실은 짐을 뜻하는 '바리'가 결합한 것이다. 20세기에 '물바리', '말바리'도 나타나는데, 고유어 '말'과 '바리'가 결합한 것이다.

문헌 속의 마바리

전체 용례 8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마바리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마바리

출처 1896 국한회어 곤:104 용례 01

문헌 용례

마바리 馬聚.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ᄆᆞᆯ바리, 말바리, 마바리 외 1종 용례 7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ᄆᆞᆯ바리, 말바리, 마바리, 馬바리

출처 1907 귀의성 상:133 용례 02

문헌 용례

좌우 길가에난 거러ᄀᆞ난 힝인들이오 길 가온ᄃᆡ난 ᄆᆞᆯ바리, 쇠바리, 인력거들이라.

현대어 풀이

좌우 길가에는 걸어가는 행인들이요 길 가운데는 마바리, 소바리, 인력거들이다.

출처 1911 치악산 하:42 용례 03

문헌 용례

원쥬 벌치 고ᄀᆡ는 무론 사쳘ᄒᆞ고 화젹당들이 자가살이 ᄉᆞᆯ틋 득시글득시글ᄒᆞ는 고로 해만 셜ᄉᆞ핏ᄒᆞ면 말바리 말ᄉᆞ군 소바리 소ᄉᆞ군 보힝군 신교군들이 하로밤을 물밥을 사먹고 쥬막에셔 자는 한졍이 잇셔도 해진 뒤에ᄂᆞᆫ 그 고ᄀᆡ를 못 지나가는 터이라.

현대어 풀이

원주 벌치 고개는 물론 사철하고 화적당들이 자가사리 끓듯 득시글득시글하는 고로 설핏하면 마바리, 말꾼, 소바리, 소꾼, 보행꾼, 신교꾼들이 하룻밤을 물밥을 사 먹고 주막에서 자는 한정이 있어도 해진 뒤에는 그 고개를 못 지나가는 터이다.

출처 1913 한월 하:91 용례 04

문헌 용례

에그 밤의 쑴자리가 뒤슝슝ᄒᆞ더니 별일이 다 만어 마바리가 아니 되면 당나귀만 모여든다구 식젼 딧바람의 계집ᄋᆡ가 요-ᄒᆞᆫ니 드러오더니 오날은 슐 ᄒᆞᆫ잔 아니 팔이고 관가의 ᄋᆡ미ᄒᆞᆫ 말만 듯깃지.

현대어 풀이

에구. 밤의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별일이 다 많아. 마바리가 안 되면 당나귀만 모여든다구. 식전 댓바람에 계집애가 요하니 들어오더니 오늘은 술 한 잔 안 팔리고 관가의 애매한 말만 듣겠지.

출처 1920 동아일보 7월 13일 4면

용례 05

문헌 용례

일즉이 일어나서 아릐칭에 나려가 본즉 벌서 우리 주인집에도 문 압헤는 마바리 소바리가 늘어서 잇고 마루 씃헤는 시골 사람들이 긋득이 늘어 안젓섯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1 동아일보 7월 9일 3면

용례 06

문헌 용례

금일부터는 구역에 싸라서 나무바리를 모하 시장 안에서 매々하게 하고 도로로 소바리나 말바리를 쓸고 다니지는 못하게 할 터이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4 조선일보 3월 6일 3면

용례 07

문헌 용례

뒤의 일행이 다 온 뒤에 례방 비장과 김량달은 안방에 들고 장교들과 짐꾼 말꾼들은 행인들과 가차 박갓방에 들고 말들은 따로 마바리집에 갓다 매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동아일보 5월 30일 3면

용례 08

문헌 용례

더 남아 지킬 것이 없어 밤낮으로 열린 채 잇는 저 城門을 지나 馬바리 하나 城內로 들어간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마바리 관련 낱말

바리, 소바리, 마바리꾼

마바리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마바리의 뜻과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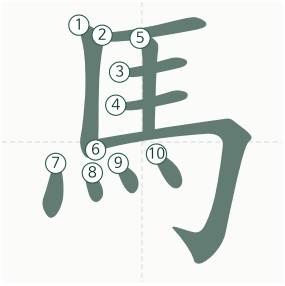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馬 뜻·음 말 마

총 10획 · 부수 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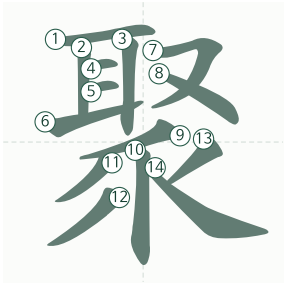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馬/

聚 뜻·음 모을 취

총 14획 · 부수 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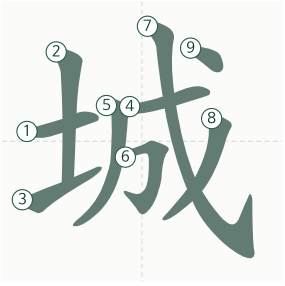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聚/

城 뜻·음 재 성

총 10획 · 부수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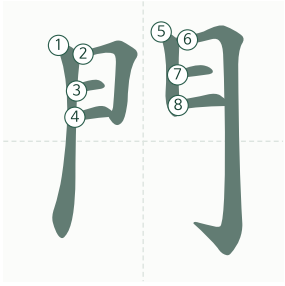
사전 10획 · 획순 그림 9획

hanja.wordrow.kr/한자/城/

門 뜻·음 문 문

총 8획 · 부수 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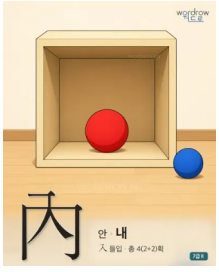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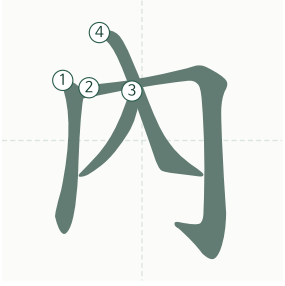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門/

內 뜻·음 안 내

총 4획 · 부수 入





hanja.wordrow.kr/한자/內/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